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음 6월 11일) 제16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내 자치단체 공약이행 31.4%

전국 시군구청장 평가 결과

남원·김제·완주·진안 등 4곳은 '최우수' 상수·부안은 '하위'·무주는 '불통' 평가

전북 민선6기 14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완주군 등 일부 시군의 공약이행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일부 시군의 공약이행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 기초 자치단체 공약 701개 가운데 11.4%(80개)가 완료되고 20%(140개)가

이행후 계속 추진돼 총 31.4%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민선5기 상반기였던 2012년 평가(14.5%)보다 16.9%p 높아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공약 목표 달성도는 94.7%, 재정확보율은 24.3%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재정계획은 총 10조6,387억 원이었으며 이 중 임기 내 재정은 총 5조59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2조5,899억 원으로 총 재정 확보계획의 24.3%, 임기 내 재정확보계획에 비해서는 51.7% 수준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약이행 완료와 2015년 목표달성, 주민·웹 소통 일치도를 평가해 5단계(SA-A-B-C-D)로 등급을 매겼다. 시군별로는 완주군과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이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 특히 완주군은 직전 평가에 이어 2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어 전주시와 군산시, 순창군, 고창군은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정수군과 부안군은 D등급에 그

쳤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세부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주민소통이 우수하고 공약 이행 내용이 자세히 공개됐으나 입법·재정정보와 재정확보 논거를 제출하지 않아 D등급으로 분류됐다. 무주군은 현재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불통등급을 받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으로써 행정중심의 완료보다 주민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소통행정을 통해 공약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서남대 정상화 '동분서주'

이환주 남원시장이 시의 최대 현안인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3일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 송하진 도지사,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북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지역 균형 발전차원에서 설립된 대학인 만큼 대학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이환주 남원시장, 국회 방문 도내 의원들과 대책 논의 "교육부 제출된 계획 중 지역사회 여론 중시해야"

먼저 이 시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전북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남대학교가 정상화되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지역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서남대학교 의대를 폐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 발표는 그동안 수년간 대학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남원시와 남원시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이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만나 서남대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교육부에 제출된 정상화계획 중 지역사회

회 여론을 중시하고 대학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로 지정된 명지의료재단은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이 없어 교육부로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 재단측이 의대 폐교, 4년간 790억원 출연, 아산캐퍼스 유지를 내용으로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임시시회측은 예수병원 컨소시엄을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지정하여 534억원 출연, 교육환경개선을 정상화계획으로 제출한 상태이다.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정상화계획을 검토하여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정상화 방안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와 서남대 구성원(78% 동의서 제출)은 구 재단측의 정상화 계획을 적극 반대하고 예수병원 컨소시엄의 정상화계획을 지지하며 대학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남원시의회의원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자원봉사단체 시민회원이 나서서 서남대 정상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서남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구 재단측의 정상화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장 건설한 재정기여자의 정상화계획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발표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경북 성주 최종 확정

국방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 주한미군, 포대 통제소·발사대 등 1개 포대 배치

한·미 양국이 13일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며 성주 배치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식 발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부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성주를 상신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 관련 양국 정부 간 협의가 2년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2월7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이자, 3월4일 한·미 공동실무단 공식 출범 이후 4개월 만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여러 후보

장할 때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직접 맞춰 파괴하는 무기체계로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으로 꼽힌다. 주한미군은 사드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 포대 1개의 가격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요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드의 'TPY-2 TM' 레이더는 2만 5,000여여개의 전자 송수신장치를 연결해 만든 위상배열 레이더로, 적 미사일의 발사 위치를 즉각 확인하게 된다. 레이더는 종말 모드(Terminal Mode)와 전진배치 모드(Forward-Base Mode)로 운용되는데, 이 중 요격용은 종말 모드다. 주한미군이 배치할 사드 체계는 종말 모드 레이더를 운영하게 된다. 종말 모드 레이더는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상승하고 있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감지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한다. 미국 측은 전개·운용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4년 2월 9,200억원에 합의됐으며, 이후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4% 이내에서 증액되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드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거나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주 기자

오늘도 전주지역 무더위

14일 전국에 30도를 오르내리는 짙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곳곳에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3일 "내일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에는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30도로 관측된다. /안진수 기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례

보장성 확대 전	보장성 확대 후
<p>「김○○(69세 간암환자 의정부 거주)」</p> <p>“2011년 간암 수술 후 2015년 재발, 비싼 치료비로 치료를 망설였으나 양성자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 받고 있음.”</p> <p>치료비 1,700만원</p>	<p>치료비 150만원</p>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선택진료비	간병비(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p>환자 부담 61%감소</p> <p>2012년 1조 119억원 / 2015년 3,972억원</p>	<p>환자 부담 51%감소</p> <p>2012년 1조 6,524억원 / 2015년 8,064억원</p>	<p>환자 부담 86%감소</p> <p>56만원 / 7만 5천원 (7일 기준)</p>

*4대 중증질환의 수면내시경, 유도초음파,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건강보험 적용 (2016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